

새로운 출발

시 30:4-5, 고후 5:17

우리는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은 평범한 방향이었지만, 그는 믿고 따라갈 만한 지도 한 장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거듭하며 헛고생을 했고, 그 결과 심히 고달프기 만한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마을에 도착한 그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가고자 할 방향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도 한 장도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여행자에게 이 낯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꺼운 지도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있소!” 그러자 이 여행자는 “이 지도책이 나에게 유용한 것입니까? 이렇게 두껍고 긴 내용을 읽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지도책은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가지고 다니기만 할 뿐 읽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물건에 불과할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올해 2008 년을 우리는 어디로 여행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갈 겁니까? 최소한 길은 정해 놓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의 힘에 의해 떠밀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월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다.”(시 119:105)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인생의 지도 한 장쯤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 개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는 대로 나이를 계산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출발지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며 그 종착역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의 삶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밤, 괴로운 시간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지나면 여명이 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가 해뜨기 바로 직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온다는 희망적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금년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것 소망 적인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캄캄한 밤을 맞으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도 아침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실패하고 고통 속에 살아 오셨습니까? 꿈은 깨어지고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력서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누구인지 한번 알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22 세 때 사업에 실패, 23 세 때 주 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 24 세 때 사업에 다시 실패, 25 세 때 주 의원에 당선, 27 세 때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투병, 29 세 때 의회의장직 낙선, 31 세 때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4 세 때 국회의원 낙선, 37 세 때 국회의원 다시 낙선, 39 세 때 국회의원 다시 낙선, 46 세 때 상원의원 다시 낙선, 47 세 때 부통령 낙선, 49 세 때 상원의원에 다시 낙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애 속에서 실패만을 거듭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51 세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망이 올 때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에 등불이 필요하듯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의 불/기도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의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5:7 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위하여 밤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하여 밤에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실패의 밤, 고독의 밤, 질병의 밤, 고난과 환난의 밤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확실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자의 지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려면 먼저 소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꿈을 갖지 않으면 창조와 생산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그리며 강력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달성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새해에 첫 주일부터 소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10 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데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믿음대로 채워 주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은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하고 간구 하라는 의미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폴 마이어(Paul Myer)의 통계에 의하면 "인생의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60%이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27%이고, 10%는 목표를 생각만 하고, 다만 3%의 사람들만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을 기대하시고 큰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하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가 주님 안에서 귀한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귀한 한해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